





2009년 설립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 옷캔은

한글 '옷' + 영어 'CAN' 의 합성어로 '옷으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기부참여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으며 의류의 해외 지원관련, 국내 유일 전문화된 단체로 28개 국가 현지의 비영리단체 또는 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던 자원인 옷의 재사용을 통해 해외의 난민, 재난 국가, 소외계층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로는 가정학대 피해 아동, 쪽방촌, 다문화가정 등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LICENSE

2011'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2016' 외교부 비영리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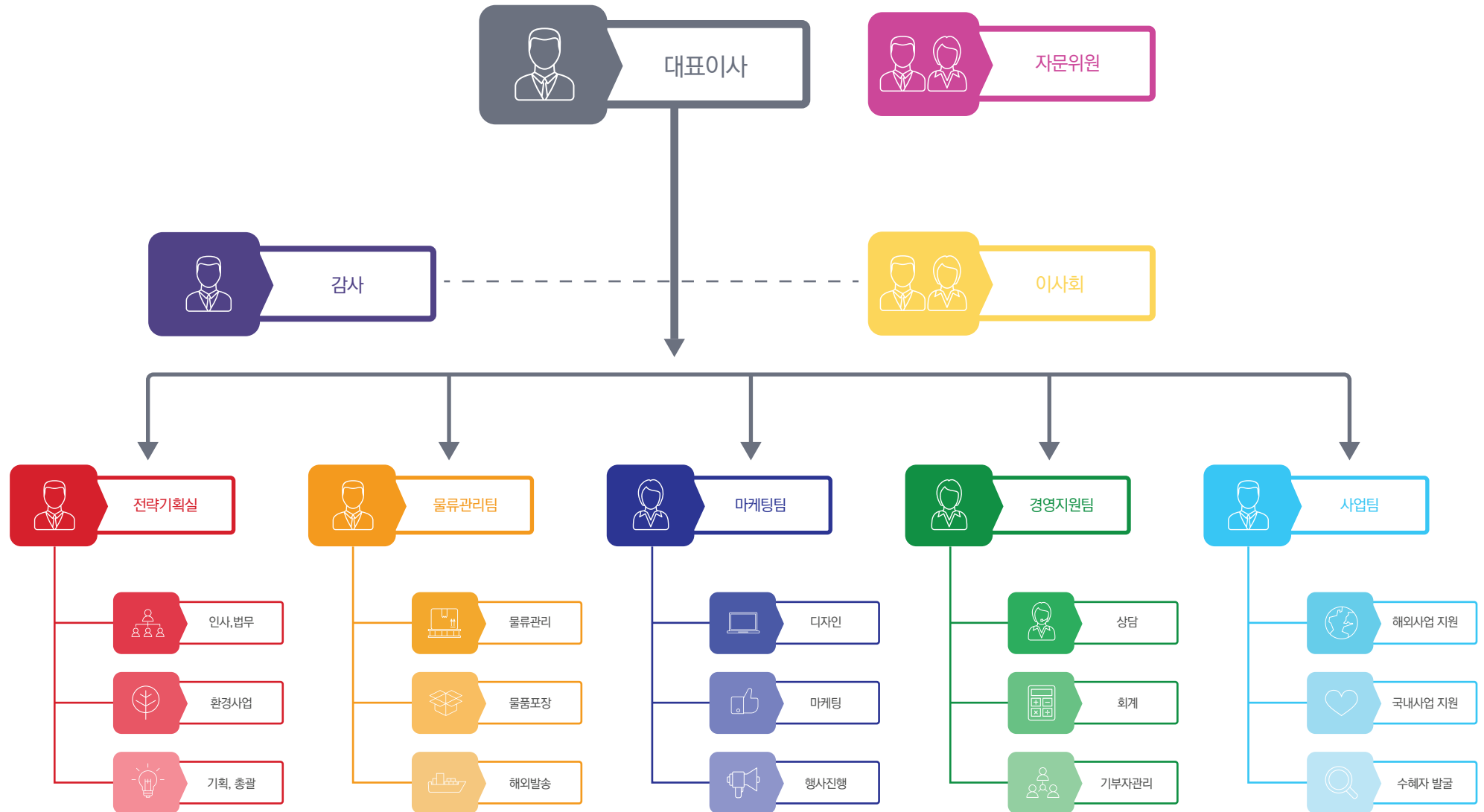
2016'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옷캔은 정부기관 소속이 아닌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에 의거, 허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대한민국 환경부와 외교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금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ORGANIZATION CHART



HISTORY



HISTORY

📈 4,010 ton 👤 769,000+ 🌐 #28Country

옷캔은 현재까지 기부자 769,000명의 참여로 4,010톤에 달하는 기부물품을 28개 국가에 나눔하였습니다.

해외나눔

아프리카권과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외 28개 국가에 의류와 생필품 나눔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재난피해국가 지원,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 등 해외의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국내나눔

가정학대 피해 아동, 다문화 가정, 청소년 시설, 미혼모센터 등 취약계층에 의류 또는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나눔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시설에서 필요한 이불과 수건을 지원합니다.



교육사업

미술용품 지원과 미술교육으로 해외 아이들이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손 씻기 방법과 손 세정제 제작 등 위생교육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사업

의류 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점을 인식하고 폐기될 수 있는 재고 의류, 개인의 헌옷 재사용과 의류 자원화 연구 및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YSTEM



여러분이 기부해주신 옷들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기부물품을 박스에 포장하여 옷칸에 발송합니다.



도착한 물품은 성별, 나이, 계절별 분류 과정을 거쳐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 나눔용 물품을 따로 분류하게 됩니다.



분류된 물품은 수혜국가의 기후와 연령에 맞게 컨테이너에 선적
또는 항공 화물 등으로 해외로 발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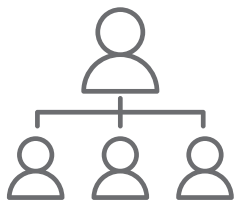


도착 후 통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은 옷칸에서 주관하거나,
현지 비영리법인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통관 완료 후 현지에서 배포가 진행되며, 일부 국가에 한해서 현지 의류
시장을 교란하지 않기 위해 일부 품목은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발생한 수익금은 현지 아동을 위한 미술, 위생 교육과 생필품, 방역 물품
지원에 사용됩니다.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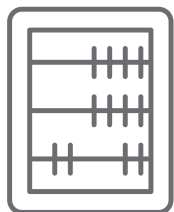


수혜자 및 수혜국가는 이렇게 선정됩니다.

옷캔은 28개 국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육군 파병부대와 함께 시리아 난민 지원 사업, 필리핀 허리케인 피해 지역 돕기, 아이티 지진 피해 지원 등 인도적인 지원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 지원 요청 시 공정한 배포를 위해 공문,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 이미 재활용 또는 일반 의류 시장이 형성되어있는 국가나 지역은 현지 시장을 교란하지 않기 위해서 옷캔의 기부물품 중, 일부 품목은 판매 과정을 거쳐 현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옷이 좋은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물품이 선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옷이 해외로 보내지기 위해서는 기부물품 수거, 분류, 포장, 컨테이너 적재, 통관비, 해외 운송료를 필요로 합니다.

하여 옷캔은 기부금을 함께 받고, 보내주신 물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 되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부물품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부금이 필요합니다.

옷캔의 기부금품 사용 내역은 매년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옷캔 홈페이지 연차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lothes

옷캔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선도하고
환경보호와 자원순환까지 생각합니다.

culture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선도하여 단순한 기부에서 탈피하고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젝트 시도

옷캔 프로젝트
다양한 계층 참여

People

옷을 통해 국내외 많은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형태로 희망을 선물하여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

국내외 의류 나눔사업
해외 미술, 위생 교육

Environment

환경문제를 고민하며, 의류 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 개선 및
의류 업사이클링, 자원화 연구 진행

탄소배출 감축 유도
업사이클링, 자원화 연구

옷캔이 옷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PEOPLE



옷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

나와 내 가족의 옷이 소중하게 사용되길 원하신다면
옷칸에 참여해주세요.



CULTURE

단순 금전적 기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관공서, 기업, 단체 등
다양한 나이와 계층의 참여로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옷 1kg = CO₂ 12kg

옷캔은 기부받은 의류의 선순환을 통해 매년 240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를 심는 성과(탄소 배출 관련)를 내고 있습니다.



버려지던 개인 의류와 소각되던 기업 재고의류를 기부받아 국내외 소외계층에게 배분함으로써 단순히 폐기될 뻔했던 자원을 재사용하여 의류 생명을 연장시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소각 / 폐기되어지던 의류를 재사용하게 되면 톤당 소나무 약 5천 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한 효과이며,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공공재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제안하고 있습니다.



옷캔은 아래의 환경운동을 진행합니다.

1. 시민들의 버려지던 의류 기부받기
2. 패션기업 재고의류 기부받기
3. 기부품 중 재사용 불가능품 업사이클링
4. 의류 자원화를 위한 산하 연구기관 운영



License No. 355 - 82 -00056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53 사단법인 옷캔 (우) 34905

Tel. 1661-1693 Fax. 042-353-2738

E-mail. otcan@otcan.org